

□ 서부동

*교촌동

교촌동은 마을 뒤편에 위치한 마현산 비탈에 향교가 있어 명명된 명칭이다. 예부터 이곳에는 여러 가지의 속칭이 있다. 마을에 동제나무가 있어 동네의 안위를 기원하였다 하여 불린 지당골이 있고, 지역의 동구보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다고 하여 불려진 깎골이 있고, 영천에서 서쪽으로 만리(萬里)까지 갈 수 있다 하여 서만리골이 있다. 그 외에 신사터, 새골, 잣고개 등이 어울려 불리던 마을 이다. 행정 명칭은 서쪽으로는 노상동(路上洞), 교촌동(校村洞)이 내서면에 속해 있으며 1914년 행정구역조정 때 내동면 창구동 일부와 합하여 교촌동 1, 2구로 명명되고 영천면에 속하였다. 그 후 다시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교동(校洞)에 속하였다.

*대전동

대전동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만 원래의 행정명칭은 상대전동과 하대전동이다. 이 마을은 원래 영천 이씨가 주류를 이루던 마을로 대부분 이 보흠 선생과 연관된 지명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조시대 순흥부사로 재직하던 이 보흠선생이 단종 복위 운동을 펴다가 참형되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그분의 호인 대전(大田)을 따서 마을의 명칭으로 하였던 것이다. 마을의 자연지역 명칭이 수양곡, 서산곡, 순흥연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충절을 기리는 뜻에서 연유된 것이라 생각된다. 서산곡은 주나라의 백의와 숙제가 침략자의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에서 수양산에 은거했다는 충절을 이 보흠과 비유해서 생긴 명칭이고, 수양곡은 수양대군을 비유하였고, 순흥연은 영주군의 순흥을 지칭한 것이다.

*오수동

오수동은 아름다리 버드나무가 다섯그루 있어 불린 이름이라 한다. 이 나무는 50년대까지 있었으나 어느해 심한 태풍으로 인해 물길에 파여졌다고 한다. 원래의 명칭은 청통(淸通)이며 그 뜻은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간다고 붙여진 것이다. 이 마을은 원래 역촌(驛村)으로 발달한 마을로 영천성(永川城)밖에 위치하며 여러 문헌에도 청통역이라 기록되어 있다. 근대 행정체제가 확립되면서 산저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산저면은 폐지되고 신설된 청통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1983년에는 다시 영천시에 편입되어 읍면에 해당되는 교동(校洞)에 속한다.

*화룡동

화룡동은 속칭으로 여러 자연지역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즉 노전(老田), 누터, 장승배기, 군위터등이다. 노전은 옛날 연안이씨가 살고 있었는데 차츰 가세가 몰락하여 이제 지기가 다 되었다 하여 불렸으며, 그 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다시 융성한 동네가 되어 늙은 땅이 용으로 승천한 것과 같이 옛 정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에서 화룡이라 불렀다 한다. 또 누터는 옛날 이 부근에 누각이 있었다 하여 명명되었다고 한다.